



# 전도관에서 받았던 이슬은혜 승리제단에서 더 강하게 내려

##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구세주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향해 도전하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당시 학교가 멀기 때문에 통학하기 위하여 달려서 가다보니 달리기 매력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라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열심히 연습을 한 결과 고향(전남 장흥)은 물론 인근 주변에서도 마라톤 선수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당시 치러지던 달리기 시합은 전부 제가 휩쓸다시피 했죠.

### 달리기를 잘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편입할 수 있었다

저는 공부보다 달리가 좋았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사정이 있어 그만 두었지만 달리를 잘해서 편입할 적도 있습니다. 고향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서 1등을 하였고, 또 장흥에서 벌어진 마라톤 대회에서 2등을 하였고, 또 다른 곳에서는 4등을 하고 그러다보니 23세의 나이로 중학교 2학년에 편입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문에 해남에 있는 농업고등학교에 뛰어난 마라톤 선수가 있다기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단숨에 거기까지 뛰어갔었습니다. 그 선수로부터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습득을 하니 자기 학교로 오지 않겠느냐며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파리를 싸 들고 가서 곧바로 고등학교 1학년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기독교 집안인 친구집에 갔는데 호기심으로 그 친구의 할아버지께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친구 할아버지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대답 주셨습니다. 우리집은 유교집안이라 교회에 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 할아버지 말씀대로 교회에 다니면 좋은 곳에 간다는 말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열여섯 살이었는데 고향마을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다닌 사

람이었을 정도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드물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집안에서는 다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를 하였지만 아버지마저도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옳다고 여기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굽히지 않았답니다.

### 박태선 장로님 집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열심히 전도관을 다니기 시작해

22살 때인가 교회에 나가보니 '불의 사자 박태선 장로 목포에 오다'라는 전단지 가 눈에 띄어 호기심을 갖고 목포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 당시 몸이 뜨겁고 향취를 맡았는데 집회가 끝난 후 지병이던 허리가 완전히 낫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지금가지도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당시 박 장로님은 안수를 해주셨는데 내 바로 옆에 있던 병어리가 집회 일주일 만에 귀가 열리더니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후 전도관에 매료되어 무려 35년간이나 2만제단 안에서 청소와 안내를 맡으면서 제단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전도관에 다니면서도 저는 달리를 계속하였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있다면 열일백일을 제쳐놓고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춘천마라톤대회에서 열심히 뛰어서 4등을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마라톤 대회를 준비했던 장로님들과 식구들이 영모님께 데리고 가서 안찰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안찰을 받고 나면 몸이 가볍고 날아갈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대회가 있다면 다 참여하게 되었고, 72세 때까지 노장 마라톤 대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유연한 몸을 자랑하는 85세 김승현 장로. 매일 아침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다

### 구원의 역사가 승리제단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믿고 제단에 오게 돼

저는 교회에 다닐 때에도 새벽기도를 나갔고, 전도관에 와서도 새벽제단을 나갔는데 하루는 새벽 운동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전도관에서 알고 지내던 조희준님께서 저를 진도하러 찾아 오셨습니다. 그 분은 승리제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부터 승리제단과 조희성님에 대해 들은 적은 있었지만 대개가 좋지 못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희준씨는 조희성님이 틀림없는 구세주 정도령이라고 열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녹음테이프를 틀어주면서 들어보라고 하는데 선택 내키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찾아오신 분이라 예의상 들어보는 중에 문득 '축대(구세주가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영생체로 만

드는 역사)가 조희성씨 몸으로 옮겨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역곡 승리제단에 한번만이라도 가보자' 하는 권유를 받고 쉽게 응낙을 했습니다.

며칠 후 승리제단을 찾게 되었는데 실교말씀을 들어보니 영모님(박태선 장로님) 음성과 같았고 하늘의 사람의 증표인 향취(이슬성신)를 맡았습니다. 향취는 비람같이 콧속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이 분이 구세주임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쉽사리 들어와서 나 자신도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 전도관에서 다시 승리제단으로 입교하려고 하니 집안식구들이 다 반대해

그때 저는 흑색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계약해둔 상태였는데 이를 만에 역곡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약하

기 위해 주님(조희성님)의 사진을 보면서 기도를 하며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집주인이 쉽게 해약을 해주었고, 중도금도 찾고 중풍이든 집사람과 노모를 모시고 역곡으로 이사를 할 때 아들과 딸, 그리고 모든 친척들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저의 결심을 그들이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80살 가량 되었을 때 건강검진을 받으니 위암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위에 혹이 있는데 암이라는 것입니다. 딸이 놀라서 수술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딸이 소개해 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술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 위암, 신앙으로 완치돼

꿈꿈이 생각해 보니 수술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 수술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병원에다 이야기를 하고 퇴원하였습니다. 딸에게 얘기했다는 죄를 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퇴원 후 저는 구세주를 의지하고, 또한 대체의학에서 말하는 원격의선 치료기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치료를 받으니 어느새 감쪽같이 위암 덩어리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70살이 다 되어서 시작한 양다리 벌려서 이마를 땅에 대는 운동도 맨 처음에는 어렵도 없더니 자꾸 하니 이제는 머리가 땅에 닿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자로 다리를 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딸집에 갈 때 차차시간을 기다리다가 틈을 내 운동을 하니 사람들이 놀래서 쳐다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 승리제단 입문 후 마음이 넓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돼

시간이 부족하여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는 못하지만 늘 하나님의 빛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만 열었다하면 나의 자랑이요 남의 간섭이요 험기를 참지 못하였는데 이슬성신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말의 실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마음이 넓어지고 상대를 이해하고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들이란 작은 것이지만 이웃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이렇게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가서나 늘 부지런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잘 나서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젊은 청년'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젊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제단은 내 집이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이 제단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마음가짐을 저는 항상 품고 있으며 이 직책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승리제단을 모르시거나 편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잣대를 잠시 접어두고 21일만 나오셔서 알아보십시오. 승리제단은 인간의 마음을 근본부터 바꾸는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을 마음이 바뀌어져서 영생하는 곳은 이 우주에 단 한곳 승리제단 뿐입니다. 어서 오셔서 알아보시고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승현 / 분부제단 장로

## 86회 성탄절 2부 요절송경 행사

오직 영생의 말씀은 구세주 조희성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당신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인류에게는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지휘하는 김성우 음악총감독



울동과 요절송경을 버무려 멋진 무대를 선사한 무궁화합창단



언제나 행사의 피날레를 감동으로 마무리하는 자랑스런 우리의 무궁화관현악단



사회자 김중만 승사



일본의 후지다 다헤코(우측) 승사님께서 인사 겸 찬송을 불렀다. 좌측은 윤금옥 승사



깔끔한 모습으로 요절송경을 멋지게 해 주신 부산제단 참가자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진해제단 참가자들의 요절 송경



큰 웃음을 선사해준 마산제단 참가자들